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유소연(가장 왼쪽), 박성현(가운데), 렉시 톰슨.

LPGA 유소연-박성현-톰슨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진검승부

세계랭킹 10위 이내 총출동… KLPGA 투어 강자들도 우승 사냥 나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 2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 3위 렉시 톰슨(미국)이 한국에서 샷대결을 펼친다.

12일부터 나흘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오션코스(파72·6316야드)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우승상금 30만 달러)'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아시안 스윙의 첫 번째 무대다.

세계랭킹 1~3위를 포함해 10위 이내 선수 전원이 빠짐없이 출사표를 던졌다.

78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컷 탈락 없이 우승을 다툰다.

특히 세계랭킹 1~3위 유소연, 박성현, 톰슨은 지난달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20여 일 만에 한 무대에 선다.

올 시즌 나란히 2승씩을 챙긴 세 선수는 올해의 선수와 상금랭킹 등 주요 부문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유소연(150점)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톰슨(147점)과 박성현(130점)이 추격하고 있다.

상금순위에서는 박성현(190만9667달러)이 1위에 올라 있고, 유소연(178만6524달러)과 톰슨(166만3957달러) 순이다.

우승 상금 30만 달러가 걸려 있어 대회 결과에 따라 올해의 선수와 상금 순위 모두 선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즌 종료 후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걸린 'CME 글로브포인트'에서도 톰슨(3221점), 유소연(2691점), 박성현(2619점)이 경쟁 중이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톰슨(69.015타)이 박성현(69.092타)에 근소한 차로 앞서 있다.

유소연(69.667타)은 6위다.

세 선수를 비롯해 올 시즌 LPGA투어 우승자 15명이 출전해 첫 아시안스윙 우승컵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강자들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KLPGA 투어에서는 다승과 상금, 평균타수, 대상포인트 등 4개 부문 1위를 질주하는 이정은(21·토니모리)을 비롯해 3승의 김지현(26·한화), 2승을 거두고 있는 오지현(21·KB금융그룹)과 고진영(22·하이트진로)이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8월 프로로 데뷔한 최혜진(18·롯데)도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며, KLPGA 드림투어 상금순위 1위 이솔라(27)도 신데렐라를 꿈꾼다.

2014년 백규정(22) 우승 이후 2015년 톰슨, 지난해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등 2년 연속 외국 선수에게 우승을 내준 한국 선수들이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뉴시스

K리그 상위 스플릿 A그룹 미디어데이 개최

6개 구단 감독 '출사표' …14일 본격 순위 경쟁 돌입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상위 6개 팀이 우승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상위 스플릿 A그룹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선두 전북 현대를 필두로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 현대, 수원 삼성, FC서울, 강원FC 등 6개 팀 감독들은 저마다 목표와 각오를 전했다.

6개 팀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스플릿 시스템에서 우승과 내년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티켓 획득을 향한 치열한 순위 경쟁에 돌입한다. 각 팀들은 스플릿 시스템에서 5경기씩을 더 치르고 최종 순위로 우승팀과 ACL 진출팀을 가린다.

◇감독 출사표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 "우리가 K리그 흥행을 망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매년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올 시즌의 경우 지난 4월 부상자 많아서 굉장히 고생했다. 시즌 초반 내가 시즌 일정의 3분의 2가 지나면 전술 완성도나 팀 분위기가 좋은 팀이 우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렇다. 마지막 경기에 홀가분하게 털었지만 상위 스플릿에서는 결코 만만한 경기가 없다. 1년 동안 성원 보내준 전북 팬들에게 감사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 "상위스플릿에서 더 좋은 기대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전북과 승점을 좁히고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전북전 패배가 아쉽지만 마지막 5경기가 남았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팀들이 연합 공격으로 전북을 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5경기에서 좋은 결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2017 K리그 클래식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울산 현대 김도훈 감독 "시즌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다. 리그 시작 전에 참가한 ACL에서 결과가 안좋아서 힘들었다. 우리 때문에 K리그 위상이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힘을 더 조직적으로 다듬을 수 있었다. 선수들에게 고맙다. FA컵 우승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일단 스플릿에 집중하겠다."

▲수원 삼성 서정원 감독 "리그와 FA컵 모두 잘해야 한다. 최근 몇 경기에서 승점을 많이 쌓지 못해 아쉽다. 올 시즌 많이 힘들었다. 경고누적이나 부상 선수들도 많았다. 그나마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돌아온 조성진, 김은선이 합류해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괜찮다.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겠다. 지난 경기에서 조나탄이 복귀했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은 경기에서 조금씩 경기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 남은 경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FC서울 황선홍 감독 "사실상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내년도 ACL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울산의 FA컵 우승을 바라고 있다. 올 시즌은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5경기가 남아있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그동안 실망했던 서울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강원FC 박효진 감독 대행 "팀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스플릿에 부담을 가져서 그런지 마지막 2경기에서 부담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정조국, 이근호 등 고참 선수들이 팀을 잡아줬다. 정규리그 막판 힘들었지만 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우리는 올 시즌을 앞두고 팀 목표로 ACL 진출을 목표로 걸었다. 남은 경기에서 준비를 잘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뉴시스

아이슬란드, 사상 첫 월드컵 본선행 확정

인구 34만의 유럽의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아이슬란드는 10일(한국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유럽예선 I조 최종전에서 코소보를 2-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7승1무2패(승점 22)를 기록한 아이슬란드는 크로아티아(승점 20)의 추격을 떨쳐내고 조 1위를 확정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아이슬란드에 밀린 크로아티아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2-0으로 꺾고 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됐다.

이날 코소보를 상대로 아이슬란드는 전반 40분 시구르드손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23분 구드문드손의 결승골을 앞세워 월드컵 본선행을 자축했다.

아이슬란드는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제치고 16강 진출을 이뤄냈고 16강에서 잉글랜드를 꺾으며 8강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동유럽의 강호 세르비아도 본선행을 확정했다.

세르비아는 조지아와의 G조 최종 10차전에서 알렉산더 프리요비치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승점 21점을 기록한 세르비아는 아일랜드(승점 19)의 추격을 뿌리치고 2010 남아공월드컵 이후 8년만에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이날 아이슬란드와 세르비아가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본선 참가국 32개국 가운데 진출을 확정한 나라는 17개국이 됐다.

/뉴시스

MLB 휴스턴, 보스턴 꺾고 12년만에 챔피언시리즈 진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꺾고 12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휴스턴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5전3승제) 4차전에서 5-4로 승리했다.

시리즈 전적 3승1패가 된 휴스턴은 디비전시리즈에 나선 8개팀 가운데 가장 먼저 챔피언십시리즈(7전4승제)에 선착했다.

휴스턴이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한 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소속이던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휴스턴은 2013년 아메리칸리그로 옮겼다. 쫓고 쫓기는 승부 끝에 휴스턴은 2-3으로 뒤진 8회 역전에 성공했다.

알렉스 브레그먼이 동점 솔로홈런을 터트렸고, 2사 1, 2루에서 조쉬 레딕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9회에도 카를로스 벨트란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난 휴스턴은 9회말 보스턴의 라파엘 데버스에게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허용하며 1점차로 쫓겼지만 승리를 지켜냈다.

휴스턴은 조지 스프링어와 유리 구리엘이 3안타씩을 뽑아내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선발 찰리 모튼이 4⅓이닝 2실점한 데 이어 저스틴 벌렌더가 2⅔이닝 1안타 1실점하며 1차전에 이어 승리투수가 됐다.

휴스턴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뉴욕양키스의 디비전시리즈 승자와 오는 14일부터 ALCS를 치른다.

시카고 컵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는 컵스가 짜릿한 1점차 역전승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1패를 만들며 챔피언십시리즈까지 1승 만을 남겼다.

5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진 가운데 6회에 워싱턴이 상대 실책을 바탕으로 선취점을 올리며 앞서 나갔다.

6회까지 워싱턴 선발 맥스 슈어저에게 철저히 봉쇄됐던 컵스 타자들은 7회 1사 후 밴 조브리스트의 2루타로 포문을 연 뒤 앨버트 알모라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분위기를 탄 컵스는 8회 2사 2루에서 앤소니 리조의 적시타가 터지며 2-1로 역전했다.

9회 웨이드 데이비스가 뒷문을 걸어 잠그며 승리를 확정했다.

/뉴시스